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송중기 이 남자의 색기

KBS 2TV 월화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에서 여색을 밝히는 여립 구용하를 열연하는 송중기는 단연 눈에 띈다.

금녀(禁女)의 구역 조선시대 성균관을 배경으로 한 만큼 젊은 남자배우가 특색있는 이 드라마에서 그는 뽀얀 피부와 긴 속눈썹, 아무진 입매가 돋보이는 '미모'로 시청자를 사로잡는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다.

부자연스런 연기로 시청자를 캐릭터에 몰입하기 어렵게 한 다른 '꽃미남' 배우들과 달리 송중기는 '성균관 스캔들'에서 캐릭터를 몸에 맞춘 옷처럼 소화해 낸다. 그의 능숙한 연기는 극중에서 빼어난 외모가 여심을 가장 손쉽게 홀리는 수단이라는 점을 시청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송중기는 "예쁘다란 말이 솔직히 좋다"고 털어놓았다. "오히려 더 예쁘게 나오고 싶다"는 그의 말에서 배우로서 자신감과 여유가 묻어났다. 한때 남자배우로서 '예쁘다란' 평가가 부담스러웠던 그가 이를 즐기게 된 것은 이 작품에서는 외모에 대한 칭찬이 연기에 대한 호평이기도 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는 "그런 평가가 캐릭터랑 잘 어울려서 기분이 좋고 구용하로 더 예쁘게 나오려고 노력하게 된다"며 "그래서 더 화려하게 차장하려고 한다"며 웃었다.

"외모가 차기작에 부담이 될 거란 우려는 없어요. 만약 다음



'성균관 스캔들'서 미모로 여심 유혹

"남자배우로서 예쁘다란 말 부담

지금은 오히려 즐겨요"

작품에서 캐릭터를 잘 소화하지 못한다면 '성균관 스캔들' 얘기가 나오면서 '예쁘다'라는 평가가 계속 따라다니겠지요. 그렇지만 대중의 관심은 금방 변화하죠. 새로운 역할로 인정받는다면 그런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혹을 탐하는 역할인 만큼 의상도 웬만한 여배우 의상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다. 송중기는 "실제 의상팀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캐릭터도 여자 김윤희(박민영)가 아닌 구용하"라고 했다.

"처음에는 화려한 의상이 부담스러웠어요. 명색이 양반인데 나비가 그려진 분홍 한복을 입어야 하나 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연기하다 보니 어렵은 그해야 하는 캐릭터더라고요. 어렵은 과한 게 맞아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연기하다 보면 여립에게 맞더라고요."

극중 구용하는 여색을 밝히지만 멜로 라인도 주요 4인방 중 가장 약하다. 이런 상황이 아쉬울 법도 한데 송중기는 "로맨스는 신경 안 쓴다"며 "솔직히 로맨스가 없으면 드라마에서 잘 눈에 띄지 않을 텐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걱정이 안 들었습니다"고 했다.

"로맨스가 없는 여립이 남자 캐릭터 중 분량이 가장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래도 이 캐릭터를 택한 이유는 다시는 못 말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색기 있는 사극 캐릭터가 얼마나 있었어요? 소속사에서 비중이 적다고 걱정했지만 전 애 한번 제대로 키워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캐릭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구용하와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실제 "요즘 고전영화 보기에 빠졌다"며 "영화 '러브 어페어'의 1950년대 버전을 구하고 있다고 기사에 좀 써달라"고 부탁하

는 그에게서 능청스런 구용하의 모습이 자연스레 겹쳐졌다.

"가장 중요한 게 디테일이예요. 여립의 가장 큰 매력은 순간 순간 변하는 표정에 있어요. 까불데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갑자기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0.5초의 순간이 중요해요. 몇 초 안 나오더라도 디테일을 살리는 게 중요하죠."

"성균관 스캔들"은 시청률이 10% 초반에 불과하지만 탄탄한 이야기와 젊은 배우들의 호연으로 호평받는다.

"처음에는 막이유전에게 팬데터 전해달라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제 팬이 늘어나는 걸 느껴요. 팬데터에 담긴 내용들을 보면 진심 어리게 응원해 주는 친구가 많이 생겼다는 걸 실감해요."

"성균관 스캔들" 외에 '뮤직뱅크' MC와 예능 프로 '런닝맨' 멤버로 활약 중인 그는 "쉬지 않고 다양하게 도전해 보려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김소은 이 여자의 오기

'꽃보다 남자'의 '가을이'는 이제 '오복이'에게 자리를 내주게 됐다. 가을이는 짧은 흥만 기억하지만 오복이는 중장년층까지 두루 기억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배우 김소은(21)이 지난 2일 종영한 KBS 1TV 일일극 '바람불어 좋은날'로 팬층을 확대했다. 더불어 연기 스펙트럼도 한 뼉 넓혔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솔직히 많이 힘들었다. 특히 너무 많이 울어서 당분간 울지 못할 것 같다. 정말 실컷 울었다"며 "하지만 그만큼 얻은 것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제 겨우 스물하나지만 그가 연기한 오복이는 10살 연상 미혼부와 결혼해 초등학교 아이를 얻게 된 엄마였다.

"각오를 하고 맡은 역할이긴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연기할 줄은 몰랐어요. 후반에는 제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연기들을 계속 해야하니 이해도 잘 안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부시절자들이 절 보면 '오복이 연기 너무 잘했다. 얼마나 힘들었냐'고 해주셔서 너무



'바람불어 좋은날' 오복이 역할

처음 맡은 역 다부지게 연기

"액션 연기 하고 싶어"

뿌듯해요. 그런 반응 덕에 계속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크지 않은 체구, 옛날 얼굴 때문에 그는 극중 아들과 모자기간이 아닌 남매기간으로 보였다. 아무리 연기라지만 그로서도 분명 특이한 경험이다.

"제가 원래 아이들을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 극중 아들과 수개월간 촬영하면서 아이들을 좋아하게 됐어요.(웃음) 우리 아들이 드라마가 방송되는 동안 8cm나 컸어요. 몸무게는 저랑 8kg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됐고요. 이렇게 큰아들 둘 역할은 또 언제 맡아 보겠어요. 특이한 경험이었습니."

소녀 같은 이미지지만 그는 지금껏 최철호(40), 지진희(39), 진이한(32) 등 그간 10~20살 많은 남자 배우들과 주로 호흡을 맞춰왔다. 버겁지 않았을까.

"김범을 제외하고는 희한하게도 제 상대역들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편해요. 저보다 다 선배님들이니까 배울게 많아서 좋아요. 포레와 호흡을 맞추는 데도 장점이 있었지만 상대배우와 나이 차가 많이 날 경우에도 장점이 많아요."

교고에 재학 중이던 2005년 CF로 데뷔한 그는 '우아한 세계' 등 영화 세 편에 출연한 후 '천

추태후'의 체시라 아역을 거쳐 '꽃보다 남자'의 가을이로 스타덤에 올랐다. 그리고 일일극 주인공까지 소화하면서 연기의 폭을 넓혔다.

"여린 이미지지만 그는 액션 연기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려서 스키, 검도, 태권도 등을 익히고 요즘은 요가를 즐기는 등 운동에 취미가 많다.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더 강마르고 작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누가 무시할까 봐 운동을 많이 배웠죠. 액션 연기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가을이, 오복이 외에 많은 다양한 캐릭터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유동근 '아테나' 합류

첩보드라마 12월 방영

유동근이 SBS TV 드라마 '아테나'에 합류했다.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는 유동근이 '아테나'에서 범국가 위기 방지 특수기관인 NTS의 국장 권용관 역을 맡았다고 7일 말했다.

권용관은 탁월한 직관력과 과감한 업무 진행 능력으로 인정받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작전을 펼치는 인물로이다.

정우성, 수애, 차승원, 이시아 등이 출연하는 '아테나'는 해외 6개국에서 로케이션 촬영한 대형 첩보 액션 드라마로 12월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에콜 뒤 뱅과 함께 하는 보르도 와인 특강’
2010. 10. 9(토) pm 2:30~4:30
 Dourthe No.1 Blanc 2009, Bordeaux AOC, White / Thomas Barton Saint Emilion 2006, Saint Emilion AOC, Red Ch. Belgrave 2005, Haut-Medoc AOC, Grand Cru Classe / Essence 2003, Bordeaux AOC, Super Bordeaux

광주국제식품전에서 보르도 와인스쿨인 '에콜 뒤 뱅과 함께 하는 보르도 와인 특강'이 진행됩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보르도 와인의 새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특강으로, 광주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세미나입니다. 와인 애호가, 소믈리에, 레스토랑 관계자, 일반인,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장소 :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 세미나실(2층 207호) 참가신청 : www.winepartner.co.kr을 통해 온라인 등록
 인원 : 온라인 사전 등록 60명; 현장 등록 10명
 참가비 : 2만원(사전 등록)/3만원(현장 등록) 입금계좌 : 우리은행 289-014377-12-101 ; 예금주 권홍식
 문의 : 010-5746-0852 권홍식

대학편입 마무리 실전트레이닝!

김영만의 탄탄한 합격시나리오 11월 1일 대개강

수도권 편입대비 편입영어 Final Course	이공계,자연계 편입대비 편입수학 Final Course	전남대 편입대비 TEPS 100점 올리기 Project
-------------------------------	-----------------------------------	-----------------------------------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편 (062) 227-8088